

-(-으)ㄴ/는지 알다/모르다

~는지 알다/모르다 (여부·내용·시점)

문장 안에 질문을 끼워 넣는 표현입니다. 한국어는 의문사를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며, 어순을 바꾸거나 ‘~인지 아닌지’를 위한 별도의 단어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품사	형태	예
동사, 현재	-는지	오다 → 오는지
형용사	-(-으)ㄴ지	좋다 → 좋은지
과거, 모든 품사	-았/었는지	갔는지
미정	-(-으)ㄹ지	갈지 모르겠어요
ㄹ로 끝남	ㄹ 탈락	알다 → 아는지
이다	-인지	학생인지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관형형 체계: 를 따릅니다. 동사는 -는지, 형용사는 -(-으)ㄴ지를 쓰고, 과거는 모두 -았/었음을 씁니다.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일에는 -(-으)ㄹ지를 씁니다. ㄹ로 끝나는 어간은 ㄹ이 탈락합니다: 아는지, 만드느니.

의문사가 있어도 없어도 쓸 수 있습니다. 언제 오는지 알아요?는 시점을 묻고, 오는지 알아요?는 여부를 묻습니다. 구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.

조사에 유의하십시오. 안긴 절을 목적으로 보면 을/를을 붙일 수 있지만, 실제로는 조사 없이 언제 오는지 알아요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형태입니다.

대화에서는 모른다고 말하는 경우가 더 흔하기 때문에 이 표현에서는 알다보다 모르다가 훨씬 많이 씁니다: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.

■ 예문

- 1 그 사람이 언제 오는지 알아요?
- 2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.
- 3 이 음식이 매운지 몰라서 못 먹었어요.
- 4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?
- 5 내일 갈지 안 갈지 아직 모르겠어요.
- 6 저는 그분이 한국 사람인지 몰랐어요.

■ 비교

-(-으)냐고 하다
-냐고는 누군가가 한 질문을 전달하고, -는지는 알다·궁금하다·확인하다 같은 말 안에 질문을 끼워 넣습니다. 둘 다 ‘~인지’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
오냐고 물었어요. (오느냐고 물었다) / 오는지 몰라요. (오는지 안 오는지 모른다)

-(-으)ㄴ 지
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말입니다. 띄어 쓴 -(-으)ㄴ 지는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고, 붙여 쓴 -는지는 ‘~인지’라는 뜻입니다.
온 지 3년 됐어요. (온 지 3년이 지났다) / 오는지 몰라요. (오는지 모른다)

-(-으)ㄹ지
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앞으로의 일일 때 씁니다. 갈지 모르겠어요는 아직 내리지 않은 결정에 대한 말이고, 가는지 모르겠어요는 모르는 사실에 대한 말입니다.
갈지 모르겠어요. (갈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) / 가는지 모르겠어요. (그가 가는지 모르겠다)

■ 주의

- ✗ 이 음식이 맵는지 알려 주세요.
○ 이 음식이 매운지 알려 주세요.
맵다는 형용사이므로 -(-으)ㄴ지를 씁니다. -는지는 동사와 있다류에 씁니다.
- ✗ 그 사람이 뭘 만들는지 모르겠어요.
○ 그 사람이 뭘 만드느니 모르겠어요.
ㄹ로 끝나는 어간은 관형형 체계 어디에서나 그렇듯 -는지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- ✗ 그 사람이 언제 오는 지 알아요?
○ 그 사람이 언제 오는지 알아요?
붙여 쓰면 ‘~인지’라는 뜻입니다. 띄어 쓰면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전혀 다른 -(-으)ㄴ 지가 됩니다.